



미 증시, 스냅 충격발 성장주 중심으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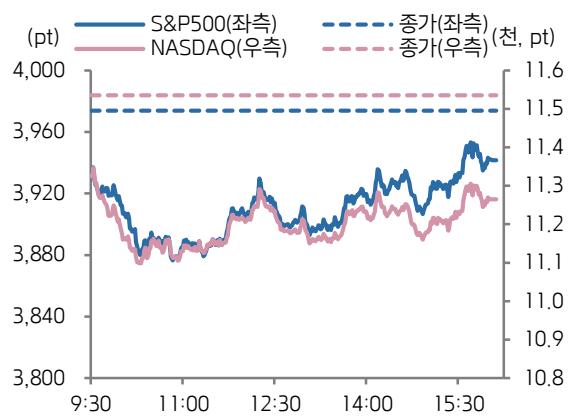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24 일 (화) 미국 증시는 스냅(-43.1%) 실적 경고로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급락. 이날 스냅 급락 여파로 메타(-7.6%), 알파벳(-5.1%), 트위터(-5.6%) 등 디지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낙폭이 컸음. 추가적으로 5 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 둔화(제조업 57.2pt, 전월 59.2pt, 서비스업 53.5pt, 전월 55.6pt),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상공을 공동 비행하면서 아시아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아진 점 또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S&P500 지수는 1% 하락 출발 후 플랫폼 기업들의 동반 급락으로 오전에 낙폭을 2.5%까지 확대. 하지만 오후장 낙폭을 축소해가면서 마감.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는 10bp, 2 년물 금리는 11bp 급락하는 등 채권시장에서도 높은 변동성 보임(다우 +0.15%, S&P500 -0.81%, 나스닥 -2.35%, 러셀 2000 -1.56%)

업종별로 유트리티(+2%), 필수소비재(+1.7%), 부동산(+1.2%) 등은 상승, 통신(-3.7%), 경기소비재(-2.6%), IT(-1.6%) 등은 하락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5%), 다우 운송 지수(-1.3%), 다우 항공 섹터 지수(-5.5%). 이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언이 있었던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의 연착륙은 연준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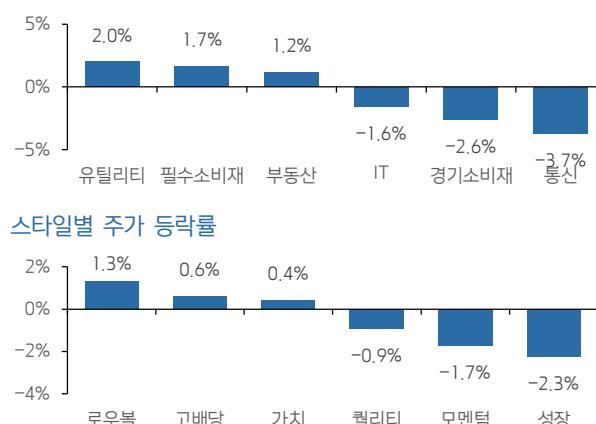
종목별로 기술주 투자심리 악화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과 더불어 테슬라(-6.9%), 애플(-1.9%), 엔비디아(-4.4%) 등 기타 빅테크 기업들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S&P500 과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 베스트바이(+1.5%)도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표명하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지만 주가는 소폭 상승.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퀄 브라더스(-4.7%)는 EPS 1.85달러(예상 1.5달러), 매출 22.87억 달러(예상 20.8억 달러)로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장외로 약 5% 급등 중.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41.48	-0.81%	USD/KRW	1,265.99	+0.14%
NASDAQ	11,264.45	-2.35%	달러 지수	101.77	-0.3%
다우	31,928.62	+0.15%	EUR/USD	1.07	+0%
VIX	29.45	+3.41%	USD/CNH	6.66	+0%
러셀 2000	1,764.83	-1.56%	USD/JPY	126.84	+0.01%
필라. 반도체	2,827.05	-2.4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578.59	-1.3%	국고채 3년	2.960	-6.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02	-6bp
Eurostoxx50	3,647.56	-1.64%	미국 국채 2년	2.479	-14.2bp
MSCI 전세계 지수	625.72	-0.91%	미국 국채 10년	2.751	-10.1bp
MSCI DM 지수	2,702.25	+1.7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34.51	-0.08%	WTI	109.77	-0.47%
MSCI 한국 ETF	66.12	-1.5%	금	1871.4	+0.9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7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1.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스냅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
2. 원/달러 환율 하락이 장중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 제공 여부
3. 장중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 여부 및 이를 둘러싼 중국 등 아시아 증시의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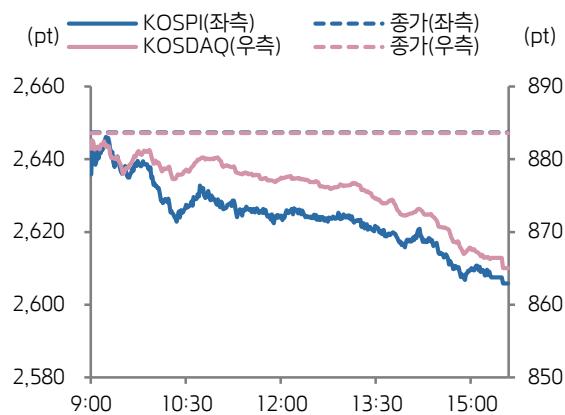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증시가 지난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좀처럼 유의미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시장 심리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모습. 또 24 일 SNS 업체 스냅(-43.01%)의 주가 폭락이 매타, 알파벳 등 관련 대형 경쟁업체들의 주가 급락을 유발했던 것처럼, 시장참여자들은 평소 때보다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변으로의 부정적인 전이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

스냅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배경이 애플 등 플랫폼 업체들의 정책 변화라는 업황 고유 요인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공급망, 우크라이나 사태 등 매크로 불확실성도 작용한 것은 사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의 5 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 들이 대체로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도 경기 냉각을 넘어 침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PMI 지표들이 경기판단 기준선인 50 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침체의 선행지표인 장단기 금리차도 (+) 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구간이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준 경기 침체급의 주가 조정을 경험하면서 상기 매크로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 조정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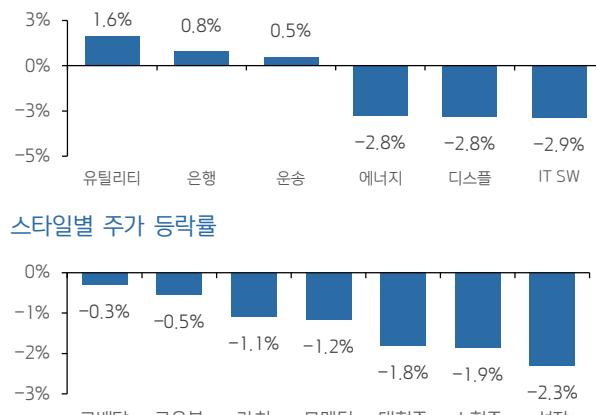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의 성장 및 기술주 중심의 주가 급락에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다만, 스냅발 악재는 전거래일 국내 증시에 일정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은 SNS 를 비롯한 광고 수익 중심의 기술주, 성장주들의 증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또한 5 월 중 1,290 원선 까지 도달했던 원/달러 환율도 고점 인식이 유효한 가운데(현재 1,261 원선), 현재 역외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이를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변동성은 확대 되겠으나, 전거래일 낙폭 과대주 위주로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	